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블라디미르 푸체

1. 한국어 교육 현황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한국학을 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수도 프라하에 있는 까렐 대학교(Charles University)이다. 이 학교 철학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동양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19세기 후반부터 중국학이 발생, 발전한 이래 1940년대에 와서 점차적으로 일본학, 한국학(그 당시에 '조선학'이라고 칭했음), 몽고학, 티베트학, 월남학도 생겨나고 발전하기 시작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점령으로부터 해방된 체코슬로바키아와 세계 무대에 진출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신생 독립 국가들과의 교류가 강화됨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동양학이 더 활발히 발전하게 되었다. 이 지역 나라들의 언어, 문화, 사정 등을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문가들을 양성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48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한국 전쟁 시기와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북한에 다방면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수많은 고아, 유학생, 기술자 등을 받아들이고 또한 1953년 휴전 협정에 근거하여 중립국 감독 위원회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코리아(Korea) 문제에 대한 우리 나라 국가 기관과 사회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훨씬 증대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환경속에서 까렐 대학교 철학부에서 1950년에 '극동 언어 및 역사 강좌'(Dept. of Far Eastern Language and History)가 설립되고 거기에서 중국학과 일본학과 이외에 조선학과도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조선학을 세우고 발전시킨 선구적인 분은 Alois Pultr(1906년생)이었다. 독일어와 불어를 전공한 Pultr 박사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일본어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졌었고 또 1940년대 초부터는 조선어까지 자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제 통치시기에 조선을 떠나 유럽으로 망명하다가 잠시 프라하에 머물렀던 몇 명의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를 연구하여 우리 나라에서 첫 조선어 교과서(1949, 1954 발간)와 <체코어-조선어 소사전>(1954)을 집필하고 출판하였다. 철학부에 설립된 조선학과에서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 해는 1950년이었다.

서양의 여러 대학과는 달리, 까렐 대학교의 한국학과는 처음부터 중국학과나 일본학과와 보완적인 분과가 아닌 독립적인 학과로 발생, 발전하였다. 실제로 그 당시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소련을 제외하고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한국학이 독립적인 대학 학과로

맨먼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프라하에 한국학이 생긴 이래 40년 동안 그 교과과정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개정, 보완 되기도 하였지만 1990년까지 실시되었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학제는 5년제이고, 교육과정은 국가 심의위원회 앞에서 졸업 논문을 발표하여 통과한 후 국가시험을 거침으로써 끝난다. 1990년에 채택된 새 대학령에 의하여 졸업생들은 'Magister'(M.A.에 해당함)라는 칭호를 받는다.

철학부에서는 1990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두 개의 학과를 선택하여 그 교과과정을 병행하여 공부하여야 했다. 한국어의 경우에 병행되는 학과가 처음에는 극동 역사이었고, 후에 보통 러시아어, 경우에 따라 일본어, 일본 역사, 서지정보학 등으로 바뀌었고 또 1989년부터 남한과의 관계 발전을 염두에 두어 두 번째 학과가 다시 영어로 바뀌었다. 두 개의 학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사고의 지식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것과 취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제도라 하겠으나 한국어와 같이 서양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언어를 습득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너무 벅차다는 생각이 든다.

1990년까지의 학제에 의하면, 총 수업 시간은 약 30시간이며, 그중 10시간은 철학, 일반 언어학, 문학 개론, 논리학 등과 같은 일반교양 과목에 할애되고 나머지 20시간은 두 개의 학과에 10시간씩 나누어 배정되었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학 공부에 주당 단 10시간밖에 할애할 수 없었다. 이 시간을 5년으로 계산하면 약 1500시간이 되며, 그 중에서도 한국어 교육(문법, 회화, 실습, 강독, 한국어 세미나 등)이 약 60%를 차지하고 그 외에는 한국의 자연, 경제지리, 사정, 한국학 개론, 한국역사 개관, 한국 문학사 개관, 한자, 각종 세미나, 졸업 논문 주제에 관련된 전공 선택 특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언어 교육은 현대어를 위주로 행해졌다.

1990년까지 국립 기관인 모든 대학의 신입생 수는 사회의 수요, 취업 전망, 학교의 내부 조건, 가능성 등에 따라 교육부에서 내려 온 교육행정 지침에 의해 정해졌다.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작은 나라에서, 더구나 외교 관계가 한반도의 절반인 북한에만 한정된 상태에서 한국학 전문가의 수요와 취업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으므로 신입생의 수도 많지 않았다. 70-80년대에 와서 겨우 3-5년마다 5-8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지나간 40여 년간에 한국학과에서 졸업 논문에 통과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졸업생의 수는 약 40명 정도이다. 그 외에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한 학생도 있었다.

또한 80년대까지 국가간의 문화 협정에 의하여 학생들은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 문학부 유학생 강화에서 6개월간 어학 연수를 받을 수도 있었다.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커다란 문제이었다. 일부 졸업생들은 국가 기관, 무역, 출판, 보도 박물관 등의 분야에서 극동 또는 한국과의 관계를 가진 부서들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로 얻은 지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으므로 한국어 실력이 약해지고 잃어버린 일도 많았다. 때문에 최근에 와서 능려한 통역관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1989년 11월에 대학생들도 큰 역할을 해 낸 혁명에 의하여 공산 독재 체제가 무너진 뒤에 교육 부문에서도 큰 변혁이 일어났다. 사회의 민주화, 세계에 대한 개방 정책의 실시, 학원의 자율화, 새 대학령 채택 등으로 하여 각 학과의 교과 과정을 새 조건에 알맞게 개편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 가을, 새 학기부터 한국학을 더 깊이, 더 광범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제를 개

편하고 두 학과를 병행하여 동시에 공부하는 종전의 학제 이외에도 한국학을 유일한 학과(즉, 주당 16-18시간)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안을 작성,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신입생 수도 늘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

현재(1991) 한국학과

학생 수=4학년 : 3명(한국어-영어 병행)

1학년 : 7명(a: 한국어-영어 병행 b: 한국학 전용)

교수 수=교수 1명, 조교수 1명, 교환 교수(한국인) 1명

(그 외 체코슬로바키아 과학원 동방 연구소 기타 기관 전문가들이 시간강사로 강의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극복하여야 할 애로점과 해결하여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남아 있다.

2. 이전과 현행의 문제점

2.1. 모국어 강사

초기(1956-62)에는 체코슬로바키아 교육부 초청에 의하여 평양에서 파견된 강사(한영순씨, 방언 전문가)가 우리 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그의 부인 유씨도 회화 공부에 큰 도움을 주었다. 60년대 말까지 체코인과 결혼한 일부 북한 여자도 임시적으로 시간 강사 자격으로 회화를 지도하였지만 70-80년대에 한국인 강사가 전혀 없어서 모든 언어의 교육을 체코 교수들이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큰 약점이었다. 그러나 1991년 2월부터 한국 학술 진흥 재단의 도움과 한국 외국어 대학과의 자매 관계에 근거하여 한국 교수가 프라하(Praha)에 가서 강의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2.2. 교과서

체코에 체류했던 한국인 선우 학원이 쓴 A Korean Grammar가 1952년에 프라하에서 발간되었으나 이 책이 이론상, 그리고 방법학적 면에서 낮지 않은 점이 많아서 우리는 그 책을 별로 이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초기에는 Pultr의 조선어 교과서, 그리고 또 램스테트(Ramstedt), 에카르트(Eckardt), 홀로도비치(Kholodovich) 등과 같은 문법책과 평양에서 온 강사가 집필한 자료를 복사하여 교재로 삼았다. 이외 모스크바(Moskva) 대학교 마주르(Mazur) 교수의 교과서도 참고로 이용하였다.

그러면서도 빨리 변화되는 한국어 어휘, 그리고 문법과 외국어 교수학에 대한 현대적 학술과 좋은 경험을 고려하고 적용한 새로운 교재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졌다. 때문에 우리는 체코의 형편과 교과과정안의 요구에 알맞는 자료를 계획적으로 작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40년간에 약 15종의 교재와 교과서가 체코어로 집필, 발간되었는데 그 중에서 언어 교육에 관한 것이 제일 많았다.

1. Pultr, A. : *Učebnice korejštiny* (조선어 교과서), 1949/1954, 272pp.
2. Pultr, A. : *Příruční slovník česko-korejský* (체코어-조선어 소사전), 1954, 253pp.
3. Pucek, V. : *Čítanka novinových a odborných textů z korejštiny* (조선 출판물 독본), 1970, pp.139~246.
4. Vochala, Novák, Pucek : *Úvod do čínské, japonské a korejské písmo I. Vznik a vývoj, II. Praktický nácvik* (중국, 일본과 조선 문자 입문 I. 발생 및 발전, II. 실습)
5. Pultr, A. : *Mluvnice korejštiny I. Hiáskosloví, tvarosloví* (조선어 문법 1 . 어음론, 형태론), 1978, 234pp.
6. Pucek, V. : *Mluvnice korejštiny II. Syntax* (조선어 문법 H . 통사론), 1986, 213pp.
7. Pucek, V. : *Základní kurs současné korejštiny* (조선 현대어 교과서), 1980, 259pp.
8. Pucek, V. : *Základy korejštiny* (조선어의 기초), 1982, 112pp.
9. Pucek, V. : *Úvod do studia koreanistiky, část filologická* (한국학 입문, 어문학 편), 1982, 195pp.

경험과 힘이 모자라서 이 교과서와 교재는 이론, 방법 등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적지 않은 결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한 일련의 긍정적인 점과 장점이 있었다. 그것은 특히

- a) 체코 학계와 교과 과정 안에 적합하다는 점
- b) 언어학적 해설이 한국어와 체코어의 대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 c)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언어학적 지식을 고려했다는 점
- d) 변화되는 한국어의 철자법, 어휘 등을 신중하게 반영했다는 점
- e) 남북한의 언어 차이의 현상을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
- f) 한국인 강사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토박이(native speaker)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본문의 녹음 기록을 제공했다는 점
- g) 체코의 언어학 용어(terminology)를 도입했다는 점

등과 같은 것이었다.

참고 : 교착어인 한국어의 문법적 개념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와는 완전히 다른 굴절어인 체코어의 어학 이론에 알맞은 적당한 체코 용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부 경우에는 영어나 러시아어 문법에 기초한 외국 교과서의 용어가 우리에게 맞지 않았다. 예: 홀로도비치의 용어 'deyepričastiye'('접속토, 연결형 어미'의 뜻)은 체코어 문법에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 우리는 랍스테트의 용어 'converbum'이라는 말을 쓰거나, 또는 체코어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보았다. 예 *converbum*→*Koncovk'a neukončeného přísudku*, 즉 연결형 어미.

물론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만든 교재로만 한정하지 않고 그 외 외국에서 발간된 새로운 교과서도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예 : Mazur, Eckardt, Czho Un-hak/Ogarek-Czoj, Lewin, Martin 등.

체코와 북한과의 국가 관계,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 학생들의 북한 연수 등으로 말미암아

일정 기간 동안 우리 한국학은 북한의 언어학과 거기서 발간된 자료를 어느 정도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특히 김일성 종합대학 유학생 강좌에서 발간한 일부 교재, 교과서도 부분적으로 또는 참고로 이용하였다. 예: <조선어>, <조선어문법>, <조선말 회화>, <조선 문화어 문법규범>(1976), <조선말규범집 해설>(1977), 김영환: <문법론(문장편)>(1976) 등등.

또한, 북한의 최근 출판물을 취급하는 시사어 강독 시간에 문화어 어휘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북한 사전도 이용되었다. 예 : <현대 조선말 사전>(1968), <조선 문화어 사전>(1973), <다듬은말> 제 1-5권(1967-76) 등등.

그 중에서 나는 북한의 한 참고 자료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조선말 토 편람>(1970, 1981)이라는 책이다. 이것은 가나다 순서로 한국어의 수많은 어미, 토들의 각종 문법적 의미를 편리하게 서술하고 간단한 예문을 첨부한 유학생용 참고서이다.

나는 이와 같은 참고서의 형태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적당한 예문(사상 부담 없는 것)을 포함하고 영어로 설명이 된 유사한 형태의 책이 앞으로 집필, 출판되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북한 교과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맞지 않은 것이 많아서(특히 주체사상, 개인 숭배 등) 80년대에 와서 서울과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 교과서의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그 대신 남한 언어규범에 기초한 여러 교과서와 사전을 더 광범위하게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예: 70년대에는 박봉남(B. Nam park)의 Korean Basic Course, 2vols. 1968; 80년대부터 특히 박창해(Chang Hai Park)의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vols. 1~3; 박용득(Francis Y. T. Park)의 Speaking Korean, 1977; 서울대와 연대에서 발간한 유학생용 각종 교과서와 문법: 이현복의 Korean Grammar(한국어 문법) 등등.

2.3. 사전

Pultr의 <체-조 소사전>(1954)은 초기에 부분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지만 그 범위가 넓지 않았고 표제어(entry words)가 많이 남아졌으므로 사용 범위가 좁았다. 때문에 학생들이 국민학교로부터 의무적으로 배워야 했던 러시아어에 기초한, 소련에서나 평양에서 발간한 여러 <조-로 사전>, <로-조 사전>이 많이 이용되었으며 70년대 말부터 남한에서나 미국에서 발간한(Martin) 각종 한-영, 영-한 사전도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체코에서 한국어 관계자들이 많지 않아 실제로 체코-한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중엽에 우리는 사전 편찬 계획을 세운 적도 있었다. 이 힘든 과제에 우리 대학 유학생 강좌에서 그 당시에 공부했던 북한의 유학생들의 언어 지식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자는 계획이었다. 체코어를 전공으로 한 몇 명의 북한 학생들에게 체코어 빈도수 사전에 기초한 체코어-조선어 사전 편찬을 졸업 논문 과제로 주고 먼저 한 학생이 체고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편찬의 이론적 원리를 연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선 3000개 단어를 가진 소사전을 시험적으로 작성하였다(Choi Gwang-Cho: *Základní Česko-korejský slovník*(체-조 기초 사전), 1989). 이후 6명의 북한 유학생들이 편찬 사업에 착수하였고 그 목적은 약 2만 단어의 울림말을 가진 소사전을 만드는 것이었으나 1989년 11월에 있었던 체코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체코에서 유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즉시 소환되고 평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편찬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다. 현재 한국 외

국어 대학과 가렐 대학에서는 체코-한국어 중사전(5만 단어) 편찬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체코에 진출한 한국의 일부 무역회사도 이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

2.4. 한자 교육

체코 한국학의 취약점 중의 하나는 한자 교육이다. 한국어 교육 시간의 양이 비교적 적고 북한의 언어 생활 속에서 한자가 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국어 강좌에서의 한자 교육이 비교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남한과의 관계가 확대되며 새 교과 과정안이 실시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이 결합이 점차로 시정될 것으로 본다.

2.5.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문제

한국에서는 국토의 분단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 정치, 경제 체계와 관련하여 언어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드디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규범이 각각 규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외국에서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 특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쉽게 앓은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것은 코리아(Korea) 언어를 교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소위 '문화어' 규범을 기초로 하여 조선말을 가르칠까, 그렇지 않으면 남한의 표준어 규범대로 가르칠까 하는 그 문제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얼마 전까지 체코의 외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체코의 한국학은 한국학 전공자들의 취업 가능성이라든가, 번역, 통역의 기회, 현지 실습 가능성 등은 다만 북한과의 관계 분야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언어규범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 당시 조건하에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대체로 유사했다고 본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너무 일방적으로만 행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남한의 사전을 이용하고 졸업 논문 작성 과정에 남한의 자료도 이용할 수 있기 위하여 또한 남한과의 훗날 관계 정상화를 예상하면서 우리는 남한의 언어규범도 교과서 작성과 강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론 규범을 둘 다 가르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국어 수업 시간 수가 제한되어 있고 학생들의 기억력에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이면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한국 말을 처음 배우는 외국 학생들에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남북한의 언어규범의 특징과 특히 어휘의 차이를 습득하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고 외워야 할 지식의 양도 많아진다.

나는 금년 8월말에 연세대학교에서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IAKLE)가 주최한 제4차 국제 세미나에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만 간단하게 이 문제를 언급하겠다.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는 언어의 여러 측면에 걸쳐 다음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a) 글자 배열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종 사전을 쓰려면 문제점이 많다.

b) 맞춤법에 있어서의 차이

-녀자 : 여자, 력사: 역사 (1948)

-사이 ㅅ 대신에 사이표['](apstrophe)를 도입한 것 (1957)

예 : 일스군>일'군, 바닷가>바다'가

-용언의 토 ㅓ>ㅓ로 바꾸는 것 (1956)

예 : 개다-개어>개여

-사이표 '의 폐기 (1956)

예 : 일'군>일군

-외래어 철자법 (1956)

㉠ 고유명사=쏘련 :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 체스꼬슬로벤스꼬, 뿌라하 : 프라하, 아세아 : 아시아

㉡ 외래 일상용어=메터 : 미터, 빼스: 버스, 탱크 : 탱크

-고유 일상용어 -

가재미 : 가자미, 찌푸리다 : 찌프리다, 꾸덩이 : 꾸덩이, 규틀 : 규울

c) 발음에 있어서의 차이 (1966)

예 : 래일(raeil) : 내일(naeil), 녀자(nyōja) : 여자(yōja)

d) 어휘 분야에서의 차이

이 차이는 특히 60년대 중엽부터 북한의 '말다듬기'언어 정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심화, 강화되었다

-한자어나 외래어를 고유어로 교체하는 것: 음료수>먹는물, 자중>제무게, 인내성>참을성, 코너킥>구석차기

-방언의 차용: 옥수수>강냉이, 상처>부루

-전문 용어: 특히 이 경우에 한글 학회나 기타 남한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 언어 순정화 정책에 의하여 어휘가 더 다양하게 된 것도 있다.

| | | | |
|-----------------------|------|-----|----------|
| accusative | 대격 | 목적격 | 부림자리(토씨) |
| indicative | 알림법 | 서술법 | 베품골 |
| praefix | 앞붙이 | 접두사 | 앞가지 |
| participium (규정형)>없음형 | 관형사형 | | 매김씨끝 |

-기관, 직책 등을 가리키는 명칭의 차이

| | | |
|-----------------|----------------|---------|
| minister | 부장(이전에는 '상') | 장관 |
| deputy minister | 부부장(이전에는 '부장') | 차관 |
| court | 재판소 | 법원 |
| university | 종합대학 | 대학교 |
| faculty | 학부 | 대학 |
| dean | 학부장 | 학장 |
| translater | 번역원 | 번역자(-가) |
| president | 주석 | 대통령 |

-일반 단어의 사용 관례에 있어서 차이

해방절 : 광복절, 천연색 영화 : 컬러 영화, 운전수 : 운전(기)사, 비행장: 공항 우 : 위,
호상 : 상호, 우편국 : 우체국

그 외 호칭, 존칭, 한자어와 외래어 사용의 빈도수 형태론, 통사론, 문체론까지 여러 가지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앞으로 한국이 통일되면 언어의 이질화가 없어지고 통일된 표준어 규범이 다시 확립될 것을 희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북한에서 이미 규범으로 되고 특히 젊은 세대에 굳어진 문화어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문화어의 규범도 어느 정도 연구하고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엔 가입과 관련하여 앞으로 서양의 여러 나라가 북한과 수교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때 서양 전문가들도 북한 사정을 더 깊이 파악하려면 아무래도 문화어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적당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교과서나 참고서, 그리고 사전 등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본다

3. 한국학의 국제 교류와 그 발전 전망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가 정책에 의하여 가렐 대학교의 한국학의 국제 교류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코의 한국학이 완전히 폐쇄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전혀 고립되어 있던 상태도 아니었다.

상호 교류, 자료 및 인적 교환, 공동 세미나 등의 협조 형태는 처음에는 주로 소련, 동부 독일, 폴란드, 그리고 북한 등 종전의 사회주의 국가에만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부터 우리 한국학파는 서유럽의 일부 대학교 한국학과, 도서관과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하기 시작하여 1980년부터 개별적인 체코 학자들이 유럽 한국학회(AKSE)가 주최한 국제 회의에 매년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회의에 항상 참가했던 유명한 남한의 여러 학자와 교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점차적으로 남한의 여러 인사와 대학교들과의 개별적인 접촉과 자료 교환을 실시하게 되었다.

1989년 9-10월에 본인은 한글 학회와 한국 학술진흥 재단의 초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방한하여 처음으로 한국의 여러 대학교 및 연구기관을 방문하고 또 한글날에 즈음하여 열렸던 학술 토론회에도 참가했었다.

나는 지금까지 체코 한국학의 발전에 여러 면으로 기여를 한 한국 학술진흥 재단, 한국 국제 문화 협회, 한글 학회, 그리고 각 대학교와 개별 학자들에게 이와 같은 귀중한 도움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

1989년 11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정치적으로 근본적인 변혁이 이루어진 후에 체코의 한국학은 새로운 발전에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맞이하게 되었다.

-1990년 3월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1990년 4월에 한국 학술진흥 재단 이사장 일행의 공식적인 체코 방문.

-동년 7월에 한국 외국어대학교 총장 일행이 가렐 대학교를 방문

두 대학 사이에 학술 교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1991년 3월에 한국 교수가 프라하에 파견되고 한국학과에서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도움에 의하여 한국학과에서 몇 명의 학생들과 조교수, 체코슬로바키아 과학원 동방 연구소 한국학 연구원들이 한국에 와서 단기 연수를 받게 되었으며, 각 대학과 연구소와의 교류와 협조가 현저히 강화되었다.

-또한, 체코슬로바키아와 한국의 전면적인 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졸업생들의 취업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국내외의 유리한 조건하에서 우리 학과의 교과 과정을 합리적으로 완성하고 광범위한 국제 교류를 적극적으로 행하며 그리고 오늘과 같은 기회를 통해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래에 카렐(Karel) 대학의 한국학과 특히 한국어 교육 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